

도널드 파울러 박사, 구약 배경, 강의 20, 아시리아의 멸망

© 2024 돈 파울러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구약의 배경에 대해 가르치는 Dr. Don Fowler입니다. 세션 20, 아시리아의 종말입니다.

나는 니켈을 맨홀 뚜껑처럼 버리는 것에 대해 시카고 베어의 위대한 축구 코치인 Mike Ditka가 한 말을 기억합니다.

나는 그것을 내가 많이 사용하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처럼 이 제국들을 통과할 때, 그것은 우리가 40,000피트 상공에서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달에 가서 지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입니다. 하지만 구약성서 연구에서 당신이 하는 일은 수세기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니켈처럼 수세기를 던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세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는 단지 몇 가지 작은 것, 또는 몇 가지가 아닌 작은 것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몇 가지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약성서의 문제이거나, 너무 많은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문제 중 하나입니다.

맙소사, 그것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학점을 주더라도 이론적으로는 더 많은 학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비디오에서 아시리아 제국에 돈을 지불하고 아마도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헤립에게 다시 관심을 돌려보겠습니다. 산헤립은 서방에서 반역을 당했고 이로 인해 그는 성경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서부에서는 남쪽으로 와서 우리가 얘기했던 찬탈자 메리디스 발라단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서구를 대상으로 한 이 캠페인을 살펴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성경이 산헤립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그 전쟁에 대한 산헤립의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기록은 서로 약간 다르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에 대한 그의 캠페인에 대한 이 두 가지 기록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전에 히스기야는 사르곤에 대한 반역에 동참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현명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사야 회의에 반대하여 비블로스, 아르파트, 모압, 에돔, 암몬, 아스글론이 포함된 이집트의 티레가 이끄는 연합에 합류했습니다.

글쎄, 우리가 거기에 나열한 이름은 많지만 왕국은 몇 개뿐입니다. 대부분은 도시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특별히 인상적인 연합은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실제로 패배한 적이 없었고, 실제로 전투에서 패한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내 말은, 그들은 일부를 잃었지만, 그들이 전투에서 패했을 때 그들을 패배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목할 만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히스기야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이사야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알다시피, 첫 페이지의 헤드라인을 읽으려고 하는 실수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지만, 내가 볼 수 있는 유일하게 호의적인 헤드라인은 아시리아 왕들이 군사 작전을 덜 펼쳤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반란이 적었기 때문에 군사 작전을 덜 펼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나는 히스기야가 반란을 일으킨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내 머릿속에서 꺼내려고 애쓰느라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는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할지 지켜보기만 했다면 훨씬 더 똑똑했을 만큼 충분한 자유를 갖고 있었지만 오히려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는 유혹에 굴복하고

반항했으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머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은, 그런데, 이집트가 당신 편이라면 인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이사야가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집트는 갈대와 같습니다. 나일강 지역에서 자라는 날카로운 나무 갈대입니다.

갈대에 손을 대고 몸을 기울이면 갈대가 손을 관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당신이 의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사야는 이것이 당신을 꿰뚫을 뿐이라고 그에게 경고했고, 물론 그 일이 정확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히스기야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 나머지 우리에게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경건하고 멍청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멍청한 행동이었어. 그래서 그는 반란을 일으키고, 에그론의 왕인 파디가 블레셋 도시 중 하나였을 때, 파디가 연합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자 히스기야는 그를 제거했습니다.

그럼, 내가 거기 있는 곳에 차를 세울 수 있는지 봅시다. 좋아요, 여기 있습니다. 놀랍게도 에크론은 여기 지도에 없습니다. 하지만 에크론은 여기 이 일반적인 지역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상대적으로 하찮은 왕인 이 왕을 강제로 연합에 합류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티는 합류하기를 거부했고,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를 제거했고, 이것이 산헤립을 서쪽으로 데려온 사건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두로가 함락된 후 히스기야는 저항을 선택하는 데 거의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티레가 있고, 티레는 이 반란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 하나였으며, 그래서 우리는 이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했던 몇 가지 묘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들이 장난을 치고 장난을 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변에 있고 장난을 치려는 당신의 생각은 당신 혼자만 남게 되고 다른 장난꾸러기 지망생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음, 그게 여기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연합이 시작되었을 때 많은 도시가 있었고 티레가 함락되자마자 이집트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철수했습니다. 물론,

이집트인은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던 이집트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강하고 강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히스기야는 속담의 바위와 어려운 곳 사이에서 거의 즉각적으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군대를 서쪽으로 데려왔고 히스기야는 거의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평지에서 이집트인들을 물리친 후 산헤립은 동쪽으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여러분에게 약간 혼란스러운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가 군대를 어떻게 이동시켰는지 비교적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를 이대로 이동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두로를 함락시킬 때까지 자신의 군대를 이리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앗수르 군대의 본대는 아마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남쪽으로 가다가 바로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자, 이 지도에서는 지형이 그리 좋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산맥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헤립이 이스라엘을 패배시키거나 패배시키려고 시도하면서 선택을 한 것은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남북으로 이어지는 능선길이 있어서 본체를 이렇게 보내는 걸까요? 80번 주간고속도로를 생각하지 마세요. 남북으로 이어지는 능선 도로가 있습니다.

산헤립은 군대를 나누어 보냈습니까, 아니면 본군을 이렇게 보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군대의 일부를 보내고, 주력군을 이렇게 해안으로 보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엘테카라는 곳에서 해안에서 이집트인들과 큰 전투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 아래에 있었고, 산헤립이 침공했을 때 그가 한 일은 그의 군대를 이렇게 남쪽으로 이끌고 그의 군대의 일부를 예루살렘을 포위하도록 보냈고 여기에서 그의 사령관인 랍사게 아래에 두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여기로 내려가서 이집트인들을 물리쳤습니다. 이제 연합군은 모두 사라지고 히스기야는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앗수르 군대 전체가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여러 가지 다른 길로 갈 수 있지만 여기 이 지역 어딘가에 있다면 이렇게 북쪽으로 가면 여기 예루살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이트 호론 능선이라는 능선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곳으로 행진했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것이다. 따라서 랍사게는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산헤립 군대의 일부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6장 36절에서 히스기야와 함께 이야기를 시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의 기록을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앗수르 사람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더라. 그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가 이 일을 자초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자기가 와서 그들을 붙잡았다고만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앗수르 왕이 랍사게를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큰 군대를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내니 그가 뿔뿔 수도 곁 세탁자의 발 대로 가에 섰더라.

그러자 히스기야의 아들 궁내대신 엘리아김과 서기관 세바셋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들에게로 나오매 랍사게가 장황하게 연설하니라. 그래서 이 긴 연설에서 히스기야는 바로 여기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랍사게는 그와 함께 꽤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고, 랍사게는 랍사게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구약에서 가장 희귀한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외국 왕이 한 연설과 그 연설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는 여기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서도 그 내용을 봅니다.

시놉틱 계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지루하게 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의 연설문을 조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안에 있으니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앗수르 왕이 이르시되 너희가 가진 이 확신이 무엇이나 전쟁에 대한 당신의 조언과 힘은 단지 공허한 말일 뿐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이제 네가 누구를 의지하여 나에게 반역하느냐? 즉, 이 단계에서 히스기야는 완전히 혼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랍사게는 그를 비웃고 있습니다. 모든 동맹국에게 전화하십시오.

글쎄요. 그러므로 네가 이 상한 갈대 지팡이 곧 애굽을 의지하느니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그의 손에 들어가 찢리리라. 네가 의지하는 애굽 왕 바로도 그러하니라

글쎄, 그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거든 히스기야가 그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너희가 이 제단 앞에서 예배하라 한 것이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 이제 와서 내 주인인 앗수르 왕과 거래를 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그 탈 사람을 찾으면 내가 말 2,000필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는 앗수르 군대가 엄청나게 강력하고 히스기야는 혼자이기 때문에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 내 주의 종들 중 가장 보잘 것 없는 관리 하나를 물리치고 애굽에 의지하여 병거와 마병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제 내가 야벳의 허락도 없이 이 땅을 멸하려고 올라왔느니라. 야벳이 내게 이르되 올라가서 이 땅을 쳐서 멸하라 하였느니라 글쎄요, 이 구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선전의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랍사게는 선전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특히 성벽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선전을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는 히스기야의 불가능한 군사적 곤경에 대해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전쟁 연대기로 볼 때 히스기야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앗수르를 군사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랍사게가 서서 유다 방언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으니 그가 히브리 말을 다 알며 랍사게의 참람된 말을 들으니라. 대왕 앗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야벳을 신뢰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 성읍은 앗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앗수르 왕이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나와 화친하고 내게로 나와서 그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다 먹으며 자기 우물의 물을 다 마시라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땅과 같은 새 땅으로 데려갈 때까지. 산헤립이 50만 명을 추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여 너희를 속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그는 당신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합니다. 열방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파드의 신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Sefer Valim의 신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언제 사마리아 곧 북쪽 왕국을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땅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야벳이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산헤립이 하고 있는 일은 매우 강력한 선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히스기야와 유대 사람들에게 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까?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세기 동안 나와 함께 돌아오세요. 한 세기 반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우리와 우리 신들을 쳐서 성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모든 시대에 어떤 신이 자기 백성을 우리에게서 구원한 적이 있었느냐? 히스기야는 이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왕국도, 단 하나의 도시도, 단 하나의 군대도, 실제로 아시리아인들을 물리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Ahab이 Qarqar에서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글썄요, 우리는 전투와 전쟁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랍사게는 성밖에서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자신의 어리석음이 그를 이런 곤경에 빠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 보면 성 안에서는 모두 잠잠했습니다.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37장에서는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야벳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이에 왕궁 관리인 엘리아김과 서기관 셉나와 제사장들의 장로들을 굵은 베 옷을 입고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망과 거절의 날이라 아이를 낳았으나 어머니가 해산할 수 없느니라.

혹시 당신의 하나님 야벳이 랍사게가 그 주 앗수르 왕의 보냄을 받아 사시는 하나님을 훼방하였으니 혹시 당신의 하나님 야벳이 그 말을 듣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말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너희는 그 남은 자를 위하여 기도할지어다 왼쪽. 이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오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너는 네 주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아시다시피 군대는 밖에 있고 신성 모독은 1피트 깊이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너희는 앗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모독하는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그 사람에게 영을 넣어서 그가 소문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내가 그를 자기 땅에서 칼에 죽게 할 것이다.

글쎄, 그때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이후, 그 밤에 여호와와 사자가 앗수르인 185,000명을 죽였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너무 많네요.

나는 185,000명이 아마도 30~40,000명의 군인에 불과하며, 그 숫자 중 더 큰 부분이 병참 인력에 관한 것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앗수르 군대의 병력이 185,000명일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밤에 천사가 군대와 병참지원팀을 모두 멸하고, 아침에는 아무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글쎄요, 아시리아인들은 처음으로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도시 예루살렘을 구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나중에 앗수르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정치적 상황을 보고 이런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군을 멸하셨으나 앗수르의 형편은 다 알며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4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냥 돌아올 것이므로 지금 행복하고 조공을 바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군대가 돌아와서 내 도시를 파괴하는 것보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엄청난 양의 금은 달란트를 보냅니다. 그는 이 전체 목록을 그에게 보냅니다. 문서를 읽고 싶다면 히스기야가 보낸 모든 목록이 나열된 영어 번역으로 제공됩니다. 그는 심지어 포로로 보내며, 히스기야는 성전 악사들을 보내고, 그의 딸들을 보내고, 그의 아내들 중 몇 명을 보내고, 엄청난 양의 은과 금을 보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솔직히 말해서 그가 받고자 하는 조공을 보냈습니다. 도시가 점령된 경우 전송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개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시리아인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공물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방금 언급한 이 흥미로운 이야기 전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음,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기원전 701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내가 그에게 소문의 영을 주리니 그가 고국으로 돌아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리라고 기록하였느니라. 실제로 산헤립은 암살되었지만 689년까지 암살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학문적으로 많은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아시리아 시대의 가장 흥미로운 질문 중 하나로 이어졌으며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적이 있었느냐? 우리는 그가 701년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689년이나 690년에 두 번째로 왔습니까? 글썄, 이것은 아마도 대답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사야가 썼을 때 내가 그에게 소문을 퍼뜨리는 영을 넣어 주리니 그가 자기 본토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산헤립이 실제로 처형되기까지는 11년, 즉 12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헤립의 캠페인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립은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결국 처형당합니다.

여기서 일어난 일에 대해 제가 생각하기에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적들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도시는 포위되었고 피할 곳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질문합니다. 전에도 안 했고, 나중에도 안 하는데 왜 여기서 하는 걸까요? 그런데 나는 그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와 관련이 있고 히스기야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단에서 들었습니다.

글쎄요, 그는 어리석었는지 모르지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랍사게의 신성 모독적이고 조롱하며 선전적인 발언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셨다는 본문의 내용이 매우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너무 의로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실 수 없으셨고, 스스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실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을 구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다음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기 위해 패러다임적으로 예루살렘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세계 최대의 제국에게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멸망시킬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시온신학이라 불리는 파멸적으로 나쁜 신학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시온 신학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가서와 이후 바빌론 시대에 읽은 책에서 읽은 문구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시온 신학은 예루살렘이 야벳의 본거지이며, 야벳은 결코 예루살렘을 적에게 함락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위에 세워졌습니다. 시온신학이 유대종교의 고정된 부분이 되었는데, 잘못 해석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들은 야벳이 이번에도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었으니, 야벳도 언제나 예루살렘을 위해 같은 일을 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주장하는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이다. 사찰이 있는 곳입니다.

방주가 있는 곳이므로 결코 무너지거나 부서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히스기야의 고난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히스기야는 자신이 여호와께 신실하였으니 여호와께서도 그에게 신실하실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시온 신학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잠식하는 암이었습니다. 훨씬 후인 신바빌로니아 시대에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 다시 반란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반역함으로써 신바빌로니아 시대에도 바로 여기서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강요하여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섬뜩하게도 이곳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나오는 매우 강력하고 중요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존재하는 것이 끝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실 신명기로 돌아가서 저주를 읽어보면, 신명기와 레위기의 저주에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너희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래서 연대기나 그런 것들을 쉽게 재현할 수 없어 다소 혼란스러운 이 이야기는 앗수르인들과 그 이후의 독자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앗수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일만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앗수르는 나의 지팡이라고 썼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앗수르가 세계 최초의 초강대국일 수도 있지만, 앗수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아래 속해 있음을 세상에 가르치려고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히스기야의 경우, 히스기야는 불행하게도 경건한 왕이면서 동시에 국사를 다스리려는 왕입니다. 앗수르에 대한 그의 반역의 결과로 일어난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내가 당신에게 가서 읽을 수 있다고 말했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또한 46개를 잃었고 산헤립은 46개의 성벽 도시를 점령했다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잃은 유대 성읍은 46개로 성벽이 많은 성읍이었습니다.

산헤립은 자신이 유대 사람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실제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보라색 지역은 유대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히스기야의 어리석음으로 인한 산헤립의 침공의 결과로서, 아마도 이 재앙적인 선택에 따른 규모의 절반 정도였을 것입니다. 나중에 바빌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절을 보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또 다른 영적 무분별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을 열고, 므로닥발라단의 사절들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들에게 성전의 부를 보여줍니다. 거의 확실하게, 히스기야가 하고 있던 일은 또 다른 동맹을 맺으려고 노력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물론 히스기야도 이 일로 인해 심판을 받습니다. 따라서 말하기가 쉽고 단순하게 들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의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은 국제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경고하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두 번이나 동맹을 맺거나 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두 번 모두 재앙이었습니다. 왕은 군국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즉, 그는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 군대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불행하게도 그의 모든 정통성, 그의 모든 경건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왕처럼 기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기스 성의 멸망에 관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커서가 가리키는 곳을 보면 우리는 마레사라는 곳에 있고, 그곳은 라기스 시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라기스는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성이었습니다. 라기스는 해안 평원을 지키고, 히스기야를 막는 능력이 있어서 강력하게 만들고, 라기스는 이 길을 따라 교통을 막을 수 있고, 왕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라기스는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히스기야는 라기스를 포위 공격하게 되었고, 여기에 라기스를 포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당신의 눈이 이 중 얼마나 많은 것을 포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전투 구호의 한 부분입니다. 산헤립은 이것을 앗시리아에 있는 그의 궁전에서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유대 흉벽 탑이 있습니다.

탑 꼭대기에는 유대 궁수가 총을 쏘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약간 담배처럼 보이는 이상한 물건을 던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들은 실제로 묶인 줄기 조각들과 불에 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성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라기스 성벽을 뚫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아시리아 공성 무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볼 수 있나요? 여기 공성추가 있습니다.

공성퇴가 전투탑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성 엔진을 불태우려고 합니다. 여기에 포로로 잡혀가는 유대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라기스를 함락시킨 것을 기념한 산헤립의 궁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점을 보여주는 이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제국의 가장 중요한 도시를 앗수르에게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왕위를 차지할 때 적당히 상당히 강한 패를 받은 왕은 국제 동맹을 맺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크게 약해진 패를 갖게 됩니다. 산헤립은 689년에 살해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 음모를 꾸미고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하는 두 아들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친구 여러분, 왕국에서 왕이 암살되어 제거되는 것을 보면 문제가 있는 제국이나 왕국을 보는 것입니다. 아시리아 왕국의 종말이 오기까지는 그리 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Esarhaddon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산헤립은 그의 아들들에 의해 암살됩니다. Esarhaddon은 왕이 될 아들이 될 것이지만 그는 명백한 상속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충실한 아들이에요.

그는 추방된 후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분명히 그의 첫 번째 행동은 바빌론을 재건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고 왕이 되고 싶어하는 에사르하돈의 형제들이 그를 강제로 유배시켰습니다.

그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후, 에사르하돈은 포로 생활에서 나와 이 두 아들, 즉 두 형제라고 말해야 할 두 아들을 물리치고 죽이는 데 성공하고 스스로 아시리아의 왕위를 차지합니다. 7년째 되는 해에 그는 이집트를 침공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물론 도처에 널려 있는 누비아라는 말은 디르하가가 실제로는 이집트의 먼 남쪽에서 온 흑인 이집트 파라오의 인물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르하가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는 한동안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10년째에 돌아와서 멤피스를 정복했습니다.

몇 년 후, 디르하가가 반역을 선동하자 그는 돌아오려고 했으나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Esarhaddon의 확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하늘색입니다. 이 하늘색은 에사르하돈이 정복한 영토입니다. 그는 나일강이 북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북부 이집트, 이집트어로 하이집트를 정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멤피스 점령에 성공했다. 그리고 실용적인 목적으로 풍선을 살펴보세요. 풍선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사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제국이 계속해서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 존재의 이 악몽을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Esarhaddon은 오랫동안 통치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그들이 세계를 구성하는 무거운 바위 조각을 어떻게 옮겼는지 보여주는 약간의 예입니다.

그들은 도르래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 거대한 블록 주위에 도르래를 감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날개 달린 황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거대하고 매우 무거운 물건들을 블록과 태클을 통해 이동하고 이동하여 큰 구조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피라미드 건설에 관해 들으면서 읽은 신화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돌이 너무 크기 때문에 피라미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주로부터 도움을 받았음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라미드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것은 우주 공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블록 앤 태클이다.

하지만 그들은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동된 매우 큰 블록을 포함하여 매우 큰 항목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자신들의 세계를 자신들에게 맞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매우 독창적이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마지막 위대한 왕, 아슈르바니팔. 보시다시피 그는 오랜 통치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668년부터 627년까지 통치했습니다.

그는 오랜 통치 기간을 갖고 있으며 지도를 보면 그 무엇도 이 악몽을 끝낼 수 없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짙은 파란색을 보세요. Ashurbanipal이 Elam을 추가했는지 아니면 Esarhaddon이 추가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나는 Ashurbanipal이 그의 제국에 Elam을 추가했다고 주장하고 싶지만 Elam이 추가되고 이집트가 추가되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나는 그것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잊어버렸어요.

여기로 다시 올라가서 살펴보자. 그는 이집트를 제국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라마를 위해 말할 수만 있다면 여기에 마지막 위대한 아시리아 왕이 있습니다.

악몽은 계속된다.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보세요.

마지막 위대한 아시리아 왕에서 제국은 가장 위대한 마지막 왕이 됩니다. 가장 오래 살아남은 제국인 엘람이 아시리아 제국에 추가되었습니다. 독립성을 잃습니다.

고대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제국인 이집트는 거의 3,0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제 이집트가 제국에 추가되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비옥한 초승달 지역과 아나톨리아 전체뿐만 아니라 이집트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선에는 현실이 있습니다. 풍선이 최대로 확장되었습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풍선이 터질 것입니다.

그러다가 10년 안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 단일체, 폭력과 이교주의의 끔찍한 집합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 아슈르바니팔(Ashurbanipal)의 통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아시리아의 마지막 위대한 왕이므로 우리는 그의 통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9명의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4:10에서는 그는 오스납발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을 볼 수 있나요? 그것은 영어로 일종의 재미있는 단어를 만들어내지만, 이러한 이름이 모국어로 전달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인들은 Ashurbanipal을 위해 Sardanapolis를 생각해 냈습니다. 그래서 거의 꽤 재미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그는 9번의 군사 작전을 수행했는데, 그 중 첫 번째는 이집트를 상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티르하카는 다시 한번 멤피스를 점령했고, 아슈르바니팔은 티르하카를 침공하여 패배시켰지만 티르하카는 곧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티르하카는 이집트의 왕위에 오른 매우 유능한 누비아 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00년 전에 흑인들이 이런 일을 할 만큼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누군가 티르하카에게 말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큰 가시가 되었고 어느 정도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계자인 타누트 아문(Tanut Amun)도 아시리아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shurbanipal은 엄청난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는 이집트를 침공했습니다. 그는 멤피스를 탈환했지만 상류로 밀고 들어가 고대 역사 도시인 테베를 점령했습니다.

이것은 나훔서에서 유다에 대한 경고의 역할을 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Amun이나 Thebes가 무너질 수 없다면 당신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후 이집트 제20왕조가 시작되고 셈티쿠스는 아시리아인들을 추방한다.

한편 바빌론에서는 아슈르바니팔의 형제 샤마시숨우킨(Shamash-Shum-ukin)이 그의 형제 아슈르바니팔의 통치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는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셈티쿠스를 소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었고 나중에는 공개적으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따라서 651~48년에 아슈르바니팔이 포위하거나 바빌론을 포위한 다음 바빌론이 함락되고 샤마시숨우킨이 죽임을 당하며 이는 아시리아의 또 다른 승리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일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645년에 그는 엘림을 정복하고 수사를 약탈하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 중 하나를 멸망시켰습니다. 모든 면에서 볼 때 645년에 아시리아는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시리아의 몰락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이 왕의 가장 큰 공헌은 아이러니하게도 고대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놀라운 아이러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확실히 그의 제국이 아니라 그의 도서관이었다. 즉, 아슈르바니팔은 골동품 수집가였습니다. 그는 읽고 쓰는 법을 아는 왕이었으며 메소포타미아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 배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가 수천 년 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상대가 없다는 사치를 누렸기 때문에 자신의 서재에 관심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서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점토판 라이브러리입니다. 하지만 그가 한 일은 아마도 최초의 고고학자로서 일꾼 팀에게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중요한 도시로 가서 파고, 고대 도서관을 찾고, 발굴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 서판을 Ashurbanipal의 도서관으로 다시 가져온 다음 그것을 신아시리아어로 번역했습니다. 즉, 그 서판은 수메르어로 기록되거나 아카드어로 기록될 것이지만, 그것은 더 이상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팀을 파견하여 그의 전문가들이 신아시리아 문서로 번역하도록 명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길가메시 서사시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아카드어로 쓰여지거나 고대 언어로 쓰여진 길가메시 서사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빌로니아 사람. 우리가 읽고 있던 길가메시 서사시는 신아시리아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Ashurbanipal의 학자들에 의해 신아시리아어로 번역되었으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작업하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너무나 잔인했던 아시리아인들에 대해 읽을 때 우리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는 것은 거의 아이러니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초의 거대한 도서관을 탄생시키고 그가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가질 수 없었을 문서를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그토록 많은 것을 파괴하고, 그토록 많은 사람을 살해하고, 그토록 많은 사람을 고문한 이 민족들이 얼마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슈르바니팔이 자신의 세계 지식을 남겼기 때문에 아시리아의 모든 금보다 더 큰 보물을 세상에 남겼다는 것은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이것이 마지막 위대한 아시리아 왕의 작품이 될 것이라고 누가 꿈이나 꾸었을까요? 음, 우리 상황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639년 이후에는 기록이 끝나게 되므로 아시리아 제국 말기의 연대를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내전은 아니더라도 내부 분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시리아 왕 목록에는 알려지지 않은 왕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시리아 제국의 지난 20년 동안의 사건을 결코 재현할 수 없습니다. 614년에는 페르시아 왕이자 메디아 왕인 키악사레스가 아시리아의 수도인 아슈르를 함락시켰습니다. 612년에 바빌론 왕 나보폴라사르의 군대가 전투에 너무 늦게 도착하자 거대한 도시 니네베가 메대인들에게 함락되었습니다.

몇몇 군대는 서쪽의 하란(Harran)으로 탈출했는데, 이는 북부 우르(Ur) 논지에서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란(Harran)에서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609년이 되면 앗시리아는 영원히 사라질 것인데, 이는 고대 세계 전체에 앗시리아가 불러일으켰던 증오심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불과 몇 년 만에 300년 역사의 제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앗수르의 도시들은 다시는 앗수르인들이 점령하지 않을 것이며, 앗수르는 바벨론인들이 마침내 복수를 하고 마침내 그들 자신의 제국을 갖게 되면서 앗수르는 멸망하고 영원히 상실될 것입니다. 함무라비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천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으며 바빌로니아인들은 그들의 마지막 제국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명해진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관한 다음 테이프에서 이에 대해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코스가 거의 끝나갑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구약의 배경에 대해 가르치는 Dr. Don Fowler입니다. 세션 20, 아시리아의 종말입니다.